



12일 철마선원을 방문한 서울·경기·강원 본말사 주지스님 200여명이 북한산 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대형 플래카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북한산 살리기 3보1배 참회기도

불교환경연대, 18일 서울역에서 조계사까지

시민대책위, 천성산고속철 반대 불교도대회

신원미상 150여명 11일 철마선원 진입 시도

자연과 수환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연 파괴의 주범이 우리 자신임을 일깨우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조계사까지 '북한산 살리기 3보 1배 참회기도'를 연다. 또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부산 범어사에서 '천성산·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를 위한 부산·경남지역 불교도대회'를 개최한다.

주장하고 "농성자들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양, 선전 선동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철마선원에 있는 불상을 여법한 법당에 이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2면>

이날 오후 조계사 교육문화관에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남명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허당·소요당 부도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11일 전남 해남 대둔사 청허당(淸虛堂)부도와 전남 장성 백양사 소요당(逍遙堂)부도를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대중사 청허당부도(전남 유형문화재 57호)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끈 서산대사의 부도이며, 석종형 부도로는 유일하게 범종 모양을 한 소요당부도(전남 유형문화재 56호)는 조선시대 소요대사의 부도다.

청허당 부도는 통일신라이래의 팔각원당형 석조 부도 양식을 계승하

면서 다른 부도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조각 기법이 사용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도는 입적한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탑이다. 권현진 기자

“마곡사 주지선거 문제없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전불교단체협 반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곡사 선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전지역백제불교단체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지명은 12일 회의를 열고 장곡스님갑사 주지가 제기한 이의신청심의회에서 '마곡사 선거는 선거인명부와 절차 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장곡스님이 제기한 진각스님 주지후보자격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지명스님은 "대전지역 신도단체들이 제기한 도덕성 문제와 한 스님이 진각스님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호

부부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대전지역백제불교단체협의회는 진각스님 주지후보 당선 무효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소속 단체 신도들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날부터 열흘간 철마정진기도에 들어갔으며, 18일 일간지와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20일에는 통학사 비리사건 사법기관에 고발, 23일에는 전국신행단체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미군 장갑차 참사 책임자 처벌을”

경불련등 13개 불교단체 성명 발표

실천승가회 인권위, 경불련, 불교인권위 등 13개 불교단체들은 경기도 양주에서 6월 13일 발생한 주한미군 2사단 제2차량에 의한 신호순, 심미선양 사망사건에 대해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두 여성생참사 사건은 명백한 미군측의 과실에 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전모에 대한 진실규명과 기

본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 사과 △사건 전면 재조사 및 책임자 처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10일 대한불교한해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단체별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시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다르마법우회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다르마법우회 무료 법률상담

조계사에서 불교강의 듣고 참선수행도

'무료 법률상담도 하고 불교도 배우고'

8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조계사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다르마법우회' 회원 20여명은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조계사를 찾았다. 토지분쟁이나 손해배상소송 등 다양한 상담내용에 대해 '다르마법우회' 회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11 12일 오전에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으로부터 '불교사상' 주제로 강의를 듣고, 15일에는 참

선실수도 했다. 불교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싶다는 '다르마법우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16일과 18일 두 차례 더 강의를 들을 예정이며, 두 조로 나눠 이달말과 다음달 초 열리는 송광사 여름수련회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다르마법우회' 김형남 회장(39)은 "올해는 봉사보다는 불교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왔다"며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어디든지 참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무의탁노인들의 쉼터

'노인의 집' 개원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쉼터 '노인의 집'이 9일 문을 열었다. '도봉서원 노인의 집'은 의지할 곳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들에게 의식주 생활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도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개원했다.

서울 도봉구 방학2동에 소재한 '도봉서원 노인의 집'은 지상 1층 규모의 건평 25평 다세대 건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은 무의탁 노인 6명이 생활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사찰생태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가 다음카페에 홈페이지 '사찰생태연구소(cafe.daum.net/empleco)'를 개설했다.

'사찰생태연구소'에는 불교의 생명사상, 해우소의 천황경성, 발우공양의 생명성, 불교와 생태계, 환경도너, 108사찰 생태기록 등 다양한 사찰생태환경 자료가 구축돼 있다. 02) 712-5812. 김원우 기자

서해교전 사상자에 성금

해동용공사 천만원 기탁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해동용공사(주지 정암)와 신도들이 서해교전 사상자들을 위해 5일 국방부에 성금 1천여만원을 기탁했다. 주지 정암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낮아 신도들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해동용공사는 또 지난 5일부터 서해교전 전사자를 위한 49대에 들어갔다. 서해교전 전사자를 위한 49대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대법당에서 열린다. 051)722-7744. 김재경 기자

육 六 임 초 래 정 情 비 秘 法

◎ **혁 신 판**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全 12 卷)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활인전문번역자용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 활인전문번역자(스님·오행가·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시식·부적·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일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하고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전문번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것 믿습니다. - 호 사 -

- ◎ 호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입니다.
- ◎ 육임학당 효사숙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에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 육임학당효사숙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입강안내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딩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